

2025년 6월 16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지정학적 사태의 대응 매뉴얼

한국 증시는 1) 이스라엘-이란간 전쟁 격화 여부, 2) 6월 FOMC 이후 연준 통화정책 경로 변화, 3) 미국과 중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하드데이터, 4) 국내 신정부 정책 모멘텀 지속 여부 등을 주시하면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840~2,940pt).

이스라엘-이란의 군사 충돌은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기존의 증시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는 대형 악재로 격화될 여지는 제한적. 7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걸프전, 22년 러-우 전쟁 등 전면전급 위기 사례를 제외하면, 지정학적 쇼크는 단기 주가 이벤트에 그쳤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하다고 판단. 따라서, 주중 관련 뉴스로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매도 포지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대선 이후 외국인 수급이 이 관건. 이들 순매수 유인(정책 기대, 수급 빈집 등)은 유효하므로, 순매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동발 노이즈, FOMC 대기심리 등이 주중 일시적으로 이들의 순매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3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미국 비농업 고용 호조, 국내 신정부 정책 기대감 지속, 미중 2차 협상 기대감 반영되며 상승세 지속. 이후 CPI, PPI 등 양호했던 물가 지표에도 불구하고 주 마지막 거래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된 결과 상승폭 축소(KOSPI +2.94%, KOSDAQ +1.67%)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전주 미국 비농업 고용 호조, 국내 신정부 정책 기대감 지속 등으로 외국인 이 약 1조원가량 대규모 순매수세를 보인 영향으로 양 지수 1%대 상승. 특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완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룬 미중 2차 협상도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폭 확대에 일조. 업종 측면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조선, 방산, 원전과 증권, 지주 등의 정책주 간 순환매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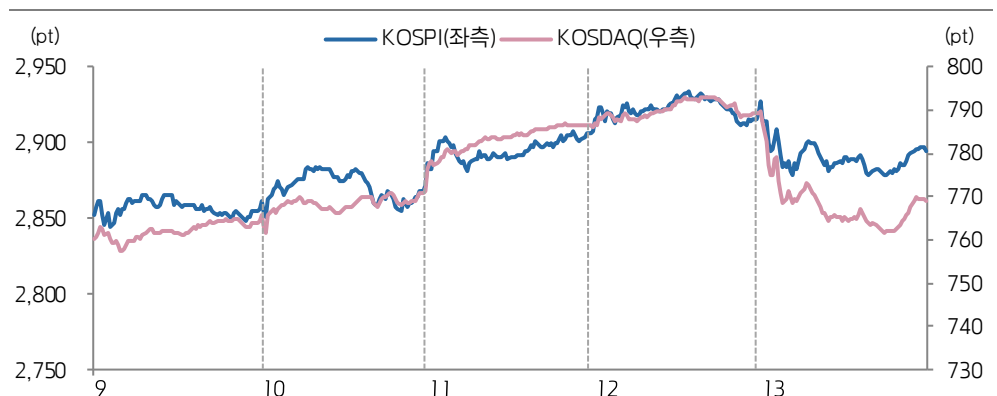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5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대비 2.4%, 코어 CPI는 2.8% 상승하며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컨센서스 헤드라인 2.5%, 코어 2.9%). 또한, 5월 생산자물가(PPI)도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0.3%)를 하회. 5월 물가지표를 확인하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재점화 조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 다만, 관세발 인플레이션 반영 시차로 인해 향후 물가지표에 대한 우려 잔존함에 따라 미 증시의 상승폭은 제한.

이후 주 마지막 거래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급하면서 지정학적 우려 확대되며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나타난 유가 급등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가하며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훼손시키는 요인. 이로 인해, 일부 해운, 방산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 그간 상승폭이 컸던 업종에서 차익실현 매물 출회. 특히, 상대적으로 방어주 비중이 적은 대신 중소형 성장주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2.6% 하락.

업종별로 기계/장비(+10.49%), IT 서비스(+6.54%), 금속(+6.32%), 일반서비스(+5.86%), 운송장비/부품(+5.7%)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5.22%), 섬유/의류(-1.34%), 부동산(-0.92%), 유통(-0.75%), 음식료/담배(+0.57%)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2조 3,034억원)은 제조(+18,408억원), 전기/전자(+9,686억원), 운송장비/부품(+6,045억원)순으로 순매수, 기관(-1조 3,651억원) 일반서비스(+1,204억원), IT 서비스(+1,182억원), 증권(+690억원), 금속(+602억원)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6 월 16 일	월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6 월	-7.5	-9.2
		중국	소매판매 (YoY)	5 월	4.9%	5.1%
			산업생산 (YoY)	5 월	6.0%	6.1%
			고정자산투자_농촌 제외(YTD, YoY)	5 월	4.0%	4.0%
			실업률	5 월	5.1%	5.1%
6 월 17 일	화	유로존	ZEW 서베이 예상	6 월	-	11.6
		미국	소매판매 (MoM)	5 월	-0.6%	0.1%
	소매판매_자동차 및 가스 제외 (MoM)		5 월	0.4%	0.2%	
	산업생산 (MoM)		5 월	0.0%	0.0%	
	수입 물가지수 (MoM)		5 월	-0.3%	0.1%	
	NAHB 주택시장지수		6 월	-	34.0	
	회의	BOJ 통화정책회의	6 월	0.50%	0.50%	
6 월 18 일	수	유로존	CPI (YoY, 최종치)	5 월	-	2.2%(1.9%)
		회의	FOMC 회의	6 월	4.25%~4.50%	4.25%~4.50%
6 월 19 일	목	한국	PPI (YoY)	5 월	-	0.9%
		회의	BOE 통화정책회의	6 월	4.25%	4.25%
		휴장	미국(Juneteenth)			
6 월 20 일	금	일본	CPI (YoY)	5 월	3.5%	3.6%
		독일	PPI (YoY)	5 월	-1.1%	-0.9%
		미국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6 월	-1	-4
	실적	액센츄어				
	파생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이스라엘-이란간 전쟁 격화 여부, 2) 6월 FOMC 이후 연준 통화정책 경로 변화, 3) 미국과 중국의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하드데이터, 4) 국내 신정부 정책 모멘텀 지속 여부 등을 주시하면서 눈치보기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840~2,940pt).

13일(금) 미국 증시는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호조 및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 확대 소식이 지정학적 불안감을 초래함에 따라 1%대 약세로 마감(다우 -1.8%, S&P500 -1.1%, 나스닥 -1.3%).

6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60.5 vs 컨센 53.5), 1년 기대인플레이션(5.1% vs 컨센 6.4%) 등 소프트 데이터들은 관세 리스크 정점 통과 인식에 힘입어 호전 중. 5월 CPI, PPI 등 하드 데이터도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관세 발 인플레이션 상방 불안을 덜어주고 있는 상황.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충돌로 이날 국제 유가가 7% 넘게 폭등했다는 점이 돌발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 유가 급등은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빠르게 영향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을 '22년 러-우 전쟁 당시처럼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핵 연구소 등 군사시설 타격을 시작으로, 금요일 미국 증시 장중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격이 감행되면서, 지정학적 갈등의 증폭되고 있는 양상. 아직 이스라엘 측의 실질적인 공격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이란의 이번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추가 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 또 15일로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도 결국 취소 수순은 밟은 상황

사실 증시 입장에서 큰 문제는 이란이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2024년 6월 EIA 데이터 기준, 말라카 해협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대응할 것이냐는 것에 있음.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 혹은 전면 충돌 확대 등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시 "공급 차질 발 유가 폭등 -> 인플레이션 급등 -> 연준 금리인하 기대 소멸 및 금리 급등 -> 증시 급락"과 같은 리스크 출현 가능성 상존.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주가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 주말 중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15~17일 G7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주요국들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 트럼프가 금요일 중 이스라엘의 공격에 동조 발언을 하면서 이란의 보복 공격을 부추겼다는 논란을 키우고 있기는 함, 다만, 인플레이션 관리가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을 더 자극하기 보다는 6차 핵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켜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판단. 또 15일 중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 공격 중단 시 보복을 멈출 것이라면서 추가 확전을 자제하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

이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란의 군사 충돌은 사태의 조속한 마무리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기존의 증시 상승 추세를 훼손시키는 대형 악재로 격화될 여지는 제한적. 70년대 오일쇼크, 90년대 걸프전, 22년 러-우 전쟁 등 전면전급 위기 사례를 제외하면, 지정학적 쇼크는 단기 주가 이벤트에 그쳤다는 점도 참고해볼 만하다고 판단. 따라서, 주중 관련 뉴스플로우로 단기 변동성이 높아지더라도, 매도 포지션 확대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

(다음 페이지 계속)

이번주는 6월 FOMC, 미국과 중국의 실물 지표 등 매크로 이벤트도 치러질 예정.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며, 경제 및 물가 전망, 점도표 변화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이미 시장에서는 성장을 전망치 하향, 물가 전망치 상향 등 경제 전망은 보수적, 점도표는 기존 연내 2회 유지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는 게 중론. 연준도 관세 영향권에 놓여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전망. 결국 연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 시, 6월 FOMC는 증시 중립 수준의 영향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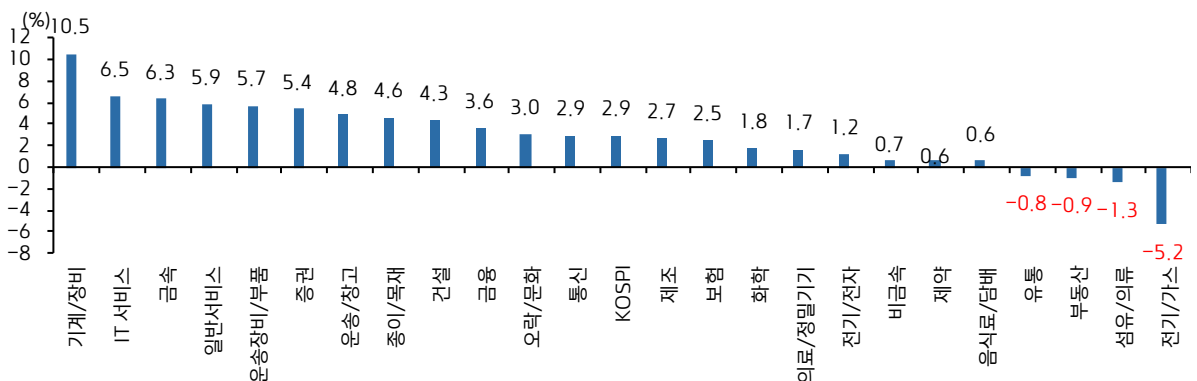
5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미국과 중국의 하드데이터 확인도 중요하긴 하나, 국내 증시 관점에서는 대선 이후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주가 모멘텀이 지속될 지가 관건. 지난 금요일 지정학 리스크로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6월 이후 8거래일 연속 바이코리야에 나서고 있는 모습. 여전히 이들의 순매수 유인(정책 기대, 수급 빈집 등)은 유효하므로, 순매수 기조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 다만, 단기적으로 집중 순매수 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진입 가격 부담 속 중동발 노이즈, FOMC 대기심리 등이 주중 일시적으로 이들의 순매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894.62	-0.9	2.9	11.0	20.6
대형주	2,881.70	-0.7	3.1	11.2	20.6
중형주	3,231.56	-1.8	1.6	10.1	21.6
소형주	2,443.58	-1.6	1.6	8.8	16.7
코스피 200	387.30	-0.9	2.9	11.6	21.9
코스닥	768.86	-2.6	1.7	5.1	13.4
대형주	1,787.91	-3.4	2.2	5.7	10.8
중형주	696.71	-2.1	1.7	6.7	18.1
소형주	2,523.82	-1.7	1.0	3.3	13.3
코스닥 150	1,253.20	-3.3	2.4	5.6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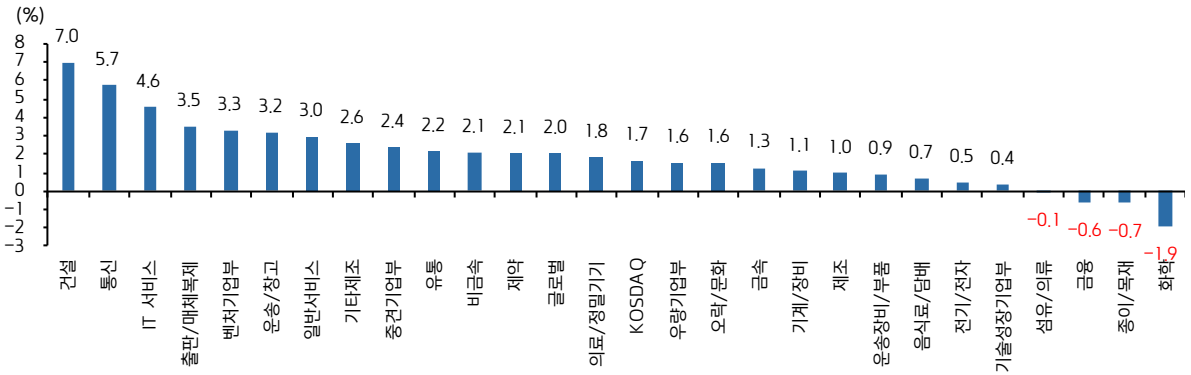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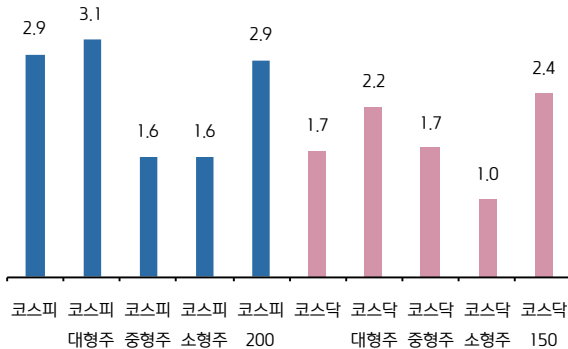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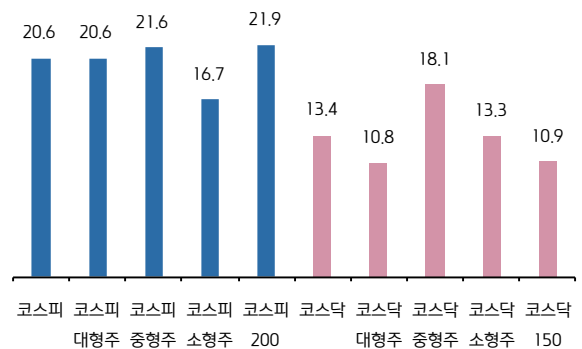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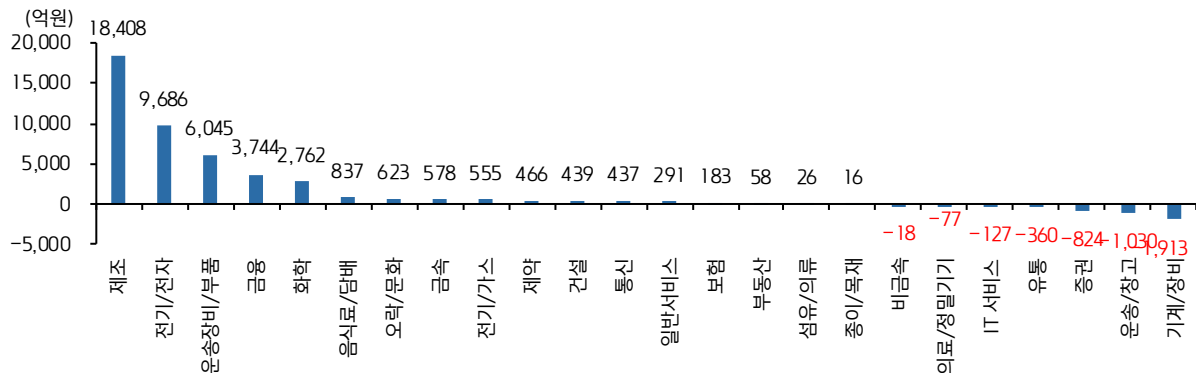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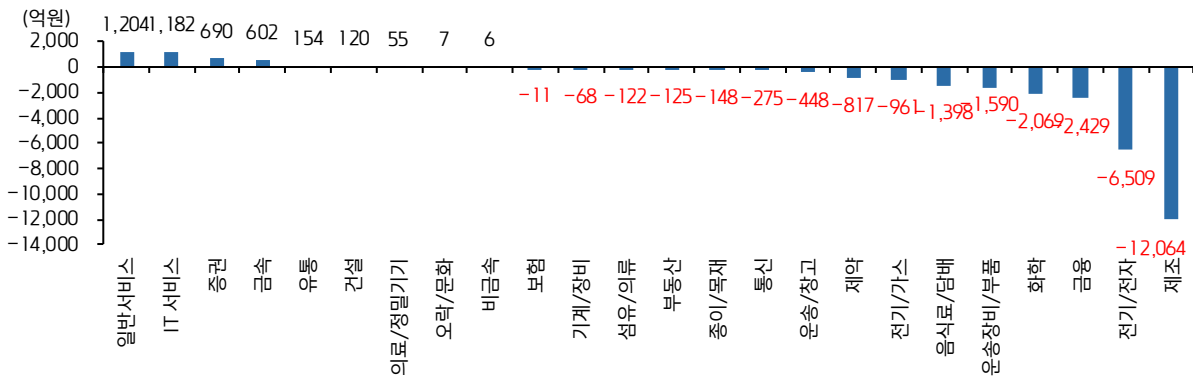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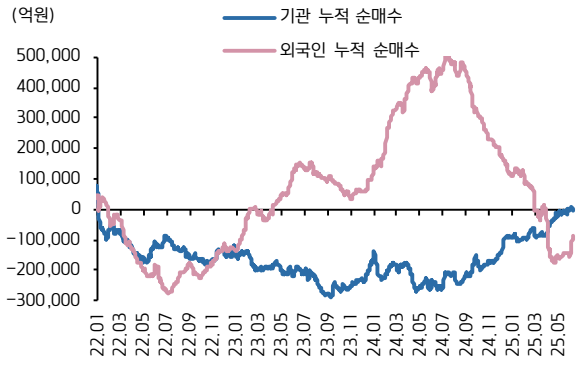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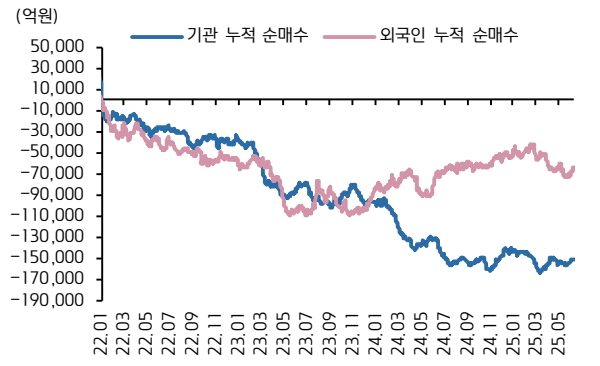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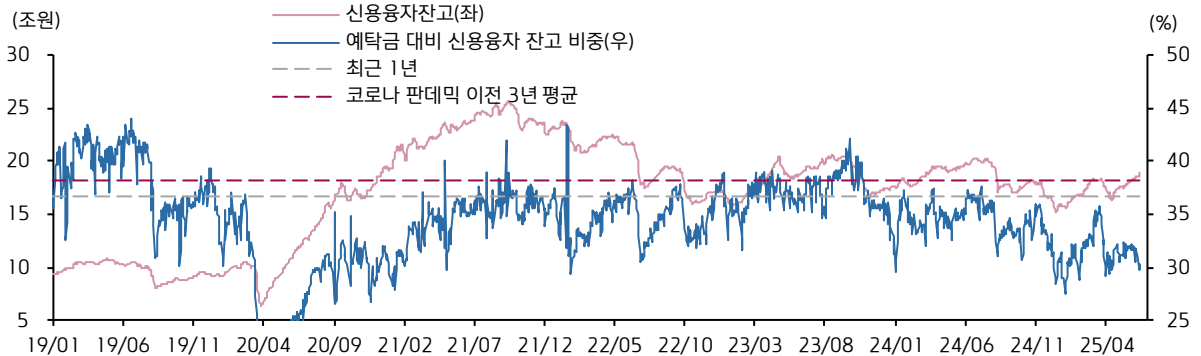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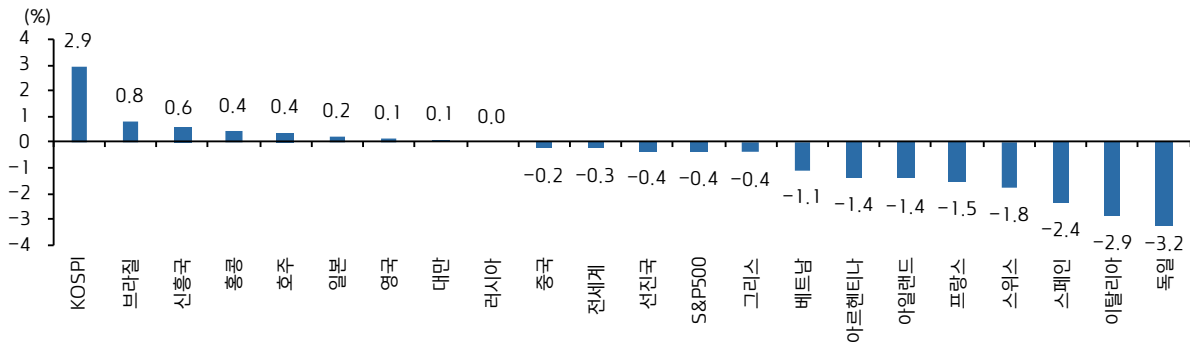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6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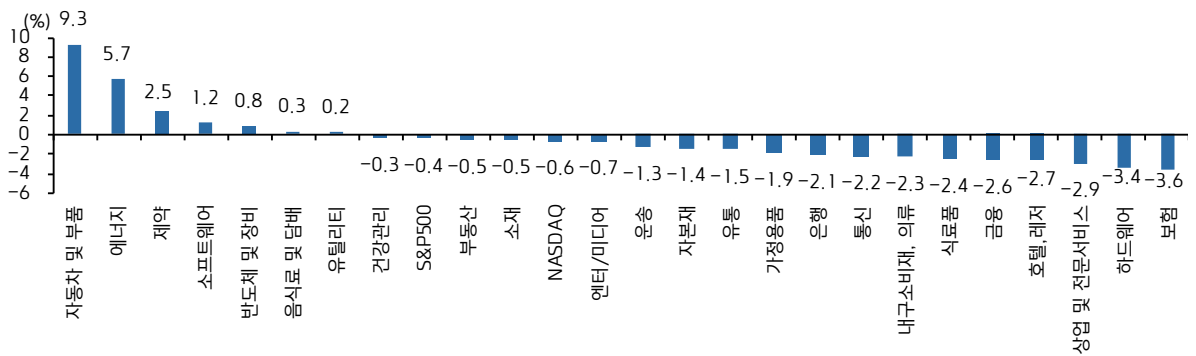
KIWOOM WEEKLY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